“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인 헌금은 총회로 전달합니다.
- 후반기 지역별 사랑방 방모임을 이번 주간부터 모입니다.
-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양노회 북시찰회가 3일(화) 동두천에 있는 안흥교회에서 모입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장성아 청년 (생일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35 호
2024년 9월 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소망의 말씀

이번 여름은 정말 무더웠던 여름으로 기억되는 듯 합니다. 뉴스에서도 해가 진 밤에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는 열대야현상이 37일 이상으로 최장시간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도 더위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에는 전쟁의 소식도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다툼의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성서일기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상황에 끝까지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와 동족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52장까지 있는 긴 예언서로 선지자의 활동 말기에 유다 왕국은 바빌로니아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쓴 편지(렘29장)에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 과수원도 만들고 아들 딸도 낳아 그곳에서 번성 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곳에서의 70년을 충실히 잘 채우고 나면 다시 데리고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은 두세대가 넘는 시간으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번성하고 성읍을 번영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멸망을 말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하시며,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 삼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렘31:31-34)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렙33:3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라가 망하고 바빌로니아 포로생활이 70년이 되는 긴 어려움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심판하여 멸망당하지만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타난 현상을 이야기 합니다. 성경말씀은 그 원인과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울 때 일수록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소망을 이야기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방모임을 시작하는데 소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

<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97 405 / 393
기도 :
성경 : 예레미야서 31장
제목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다

1-14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
해석: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삼으신 것에 책임을 지신다.
적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찾자.

15-22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해석: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적용: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순종이다.

23-30 대물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해석: 각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적용: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자. 신앙에 솔직하자.

31-40 가슴속에 새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해석: 겉모습과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과 언약 맺어야 한다.
적용: 하나님과 가슴과 마음에 기록되는 새언약을 잊지 말자. 자신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기억하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지난 여름, 혼자서는 처음이었던 해외여행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을 다녀왔고, 엘라와 율리안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당한 척했지만, 조금 무섭고 걱정되었는데, 따뜻한 격려에, 선뜻 내밀어 주셨던 도움에, 경기 중 저를 열심히 찾아주셨던 관심 덕분에 든든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을 보게 되었는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세상에 힘을 전해주는 선수들이 빛나 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올림픽 무대에,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그곳에 꼭 가고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마침 다음 올림픽이 파리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고 하니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올림픽으로 시작한 여행이지만 돌이켜 보니 스스로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혼자라는 낯선 상황이 평소에는 알지 못하던 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행 준비부터의 선택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맛집을 찾고, 산책하고 사진 찍어주는 모습을 보면서는 어쩌면 내가 생각보다 사교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가고싶다는 일념 하나로 외딴 시골 마을로 들어갈 때는 내가 생각보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품샵보다는 역사적 장소를 보는 걸 좋아하고, 계획에 안정을 느끼지만 때로는 무계획의 자유를 즐길 줄 알고, 무엇보다 도시에 담긴 이야기를 쫓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바쁜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되뇌기보다는 정해진 일정을 따라가기 바빴던 것 같은데, 여행 중 자신을 돌이켜 보며, 마음을 다잡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어렵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성장하고, 무서웠던 만큼 당당해진, 무엇보다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늘푸른사랑방 이나영 청년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미가서 4 : 2	인도자
*예배의 찬송	10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요한복음 3 : 17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208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에스겔서 37:14, 사도행전 9:31	설교자
성가대 찬양	185	미리내사랑방
설 교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210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38(1)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혜라 한미선 / 봉헌위원 : 강춘자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성숙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의 존재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각자 출신과 지역과 인종이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 교회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와 전도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기환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방학동안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는 실력이 늘어난 친구들이 여럿입니다. 날렵한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최적의 폼을 잡고 힘껏 비행기를 날립니다. 자연예배당 끝으로 쏜살같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봐달라고 선생님을 부르는 목소리에 단단한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이어람 선생님도 거뜬히 무찌르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긴 줄을 돌리며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노래에 맞추어 줄넘기를 하는 실력도 늘었습니다. 만세를 부르며 끝까지 성공하는 친구도 있고 어느 날에는 막내 하온이도 두 번이나 뛰었습니다.

이제 두 발 자전거 타기는 멍멍이들과 꿀꿀이들 모두 다 가능합니다. 올해 꾸러기들 신체 능력이 유난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놀이에 늘 전념하는 꾸러기들의 힘찬 모습이 대견합니다.

2학기 첫 나들이로 장욱진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꾸러기들 그림과도 닮은 친근한 장욱진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오후에는 미술관 옆 넓은 냇가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첨벙첨벙 머리까지 다 적시며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아마도 올여름 마지막 물놀이가 되겠지요. 여름 잘 가 안녕!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반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개의 반이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2박 3일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반은 평창 일대와 강릉에서 늦여름 바다와 보냈고 전반은 대전에서 과학관과 여러 곳을 다니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현반은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신북온천에서 불태우며 보냈고 하반은 서울 강남과 강북을 다니며 세상을 보았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즐겁게 노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즐거움 속에. 먹고 자는 것 외에. 살면서 겪고 해결해야 하는 많은 상황을 오롯이 맞으며 이겨내기도 하고 털어내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는 삶을 배우고 옵니다. 더위속에서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시간이 배움의 통장에 값진 값으로 저축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 이른 아침 교사들은 쉼을 뒤로 하고 안동으로 1차 도보여행 답사를 떠났습니다.

실제 걸어야 할 길을 걸어 보기도 하고 차로 이동하며 살피기도 하고 화장실이 있는지 숙소의 주방과 방의 상황은 어떤지 점심 먹을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 밤 12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힘이고 이렇게 사는 이유임을 고백 하며 어린이소식을 접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지리산 여행 이후 첫 학기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였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함께 모기도 극성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신선한 경험을 줍니다. 여느 때와 같이 뜨거운 햇살에서도 축구하며 땀 흘리는 광경이 펼쳐지고, 그늘가에서 구경하며 응원하는 목소리도 같이 뒤섞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정해지면서, 학교 생활의 사이클에 몸도 마음도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학생회, 부서, 동아리, 수업 등 익숙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그 중에서도 새로운 변주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심화와 열린수업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면서, 특별히 '야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 직접 야구경기를 직관하기로 해서, 멋쟁이들의 기대가 대단합니다.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을 즐겁게 만끽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 새삼 보람과 기쁨이 느껴지는 나날들입니다. 멋쟁이들의 이번 학기 활약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사랑

몇 달 전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다. 하루에 세 시간 정도 아기를 봐 줄 수 있느냐고. 아버지도 아기를 보다보면 기분이 많이 좋아지실 거고, 아기도 매일 엄마랑만 지내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니 아기와 남편의 건강뿐 아니라 아들도 자주 보고, 시내(며느리)와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았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던 나는, 아이를 여럿 난 친구들의 '첫째보다 둘째가 예쁘고 둘째보다 셋째가 예쁘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처음 듣기에는 자식을 '비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가, 차츰 그 말은 사랑의 정도가 깊어지는 것인가 보다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그렇지, 지현이보다 예쁠 수 있다는 지현이의 동생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기뻐서 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정도로 기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아기가 지현이보다 예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처음 만난 아기는 그냥 많고 많은 아기 중의 하나였고, 난 이 새로운 식구에 대해 기쁨으로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기쁨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 힘을 기울여 관찰하고 성장하는 아기가 놀랍고 신기했다. 커가는 아기의 모습은 매일매일 경이와 기쁨 그 자체였다. 사랑은 이런 거구나. 둘째가 생겨서 첫째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많아지는 거구나. 이런 '사랑의 특성'을 이제 60을 훨씬 넘어서 경험한 것이다.

지인이 카톡을 보내 왔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는 노래다. 궁금해서 노래를 열어봤다. 평생을 살아온 아내에 대한 감사의 노래다. 연애 시절, 나이든 사람들의 사랑을 비웃었던(?) 적이 있었다. 우리의 사랑만이 죽음을 불사한 사랑이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 시간이 익혀준 '사랑'을 느끼게 된다. '사랑'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죽음까지도 지켜주고 함께하고 싶은 사랑-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감사'가 있는 사랑.

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사랑에서 사랑을 조금씩 배운다. 그래서 또 감사하다.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205장, 314장
성 경 : 사도행전 6 : 1-7
말 씀 : 일곱 집사를 세우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위해>
러시아가 26일(현지시간)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100여기와 공격 드론 약 100대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디아코니아 자매회를 위해>
1) 60인 시설 노인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을 잘 보호해 주시도록
2) 제8대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원장으로 선택된 노종숙 언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위탁받은 성직을 잘 감당하도록,
3) 21명의 디아코니아 가족공동체 언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이 정신을 실천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사랑방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지역별 방모임 시작 2) 어린이학교 반별 여행을 위해(개학)
3) 회복 중이신 분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사랑방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본격적인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일상적인 일들이 진행되어 안정감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생활공동체는 그간 함께 생활한 공동생활식구를 보내면서 송별모임도 가지고 8월 생일 축하 시간도 가졌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도 더위에 수고한 섬김의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작은 행복과 감사들이 더욱 넘치는 하반기 공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